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12월 1~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베트남 12월 경제 동향

- '25년 11월 베트남 교역액 USD 770.6억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
 - '25년 1~11월 누적 교역액은 전년 동기 17.2% 증가한 USD 8,397.5억을 기록했으며, 이 중 수출은 USD 4,307.4억, 수입은 USD 4,096.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1%, 18.4% 증가
 - 대미 무역흑자 USD 1,21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
- '25년 1~11월 베트남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 USD 336.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 최대 신규 투자국은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스위스, 대만 순
 - '25년 1~11월 FDI 집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USD 236억으로 5년래 최고치 기록
- '25년 11월 베트남 제조업, 태풍·홍수 불구 경기확장 국면 지속
 - S&P Global의 11월 베트남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PMI는 53.8로 전월 대비 0.7p 하락했으나, 5달 연속 기준치 상회
 - PMI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기업 구매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업계동향 지표로 50 미만은 경기 위축, 50 이상은 경기 확장을 의미
 - 보고서에 따르면, 잇따른 태풍과 홍수 등으로 베트남 제조업 부문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
- 베트남 은행권, 6% 미만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잇따라 중단
 - 4대 국영 은행 등 베트남 주요 은행들이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해온 연 5.5% 안팎 3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서비스를 잇따라 중단

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

- 호치민시, 도시 일부 지역 저배출구역(LEZ) 지정 추진
 - 호치민시 건설국은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정부 지침 20호에 따라 2030년 전후 차량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2단계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건설부에 제출
 - 계획안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1단계 사업에서 버스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에서는 배출가스 규제 대상 차량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될 예정
 - 현재 호치민시는 2030년까지 관내 전체 차량에 대한 전기 또는 청정 연료 사용을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과 정책을 마련한 상태이며, 시내 중심가와 꺼저, 꼰다오 지역에 대한 LEZ 지정 계획 마무리 예정
- 하노이시, 100년 비전을 담은 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가속화
 - 하노이시는 새 종합계획 수립을 전담할 도시계획 검토·연구 위원회의 업무 규정과 연간 실행계획을 확정
 - 100년 비전 수도 마스터플랜은 기존의 수도 기본계획과 일반 도시 계획(현행 승인된 2021-2030, 비전 2050 계획 등)을 통합·재검토해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으로 재편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도시 확장, 인프라 개발, 공간 배치, 연결성 향상, 주변 지역과의 연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 등을 새롭게 설계할 예정
-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포럼 개최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포럼에 참석해 홍강개발, 디지털 행정모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하노이시에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등 서울시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신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장과 공식면담을 갖고 양도시간 협력과제, 구체적인 교류방안 등을 논의
 - 하노이시 부인민위원회장은 앞으로 하노이가 홍강을 개발하여 생태적 경관을 향상시키고, 도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 개발을 목표로 혁신적인 데이터 통합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③ 베트남 기타 동향

-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투자자 선정 절차 착수
 - 베트남 정부는 북남고속철도 투자자 회의를 열고 각 정부 장관과 기관장, 산업계 관계자, 그리고 수주전에 참여한 기업 5곳의 임원진을 초청, 각 사의 구체적인 자본 조달 방안과 사업 계획 등을 듣고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현안에 대해 정부 측이 직접 답변 및 논의
 - 회의를 주재한 응웬 호아 빈 상임부총리는 오늘 회의의 목적은 투자자 선정이 아니라 각 기업의 방향과 제안, 투자 계획, 재정 능력 및 약속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자, 동시에 제출 서류 중 누락 정보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지만, 참석자와 내용을 고려할 때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1차적으로 제외시키기 위함이라는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
 -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남고속철도 사업 수주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빈스피드, 타코그룹, 미국 메콜러-그레이트 합작법인, 탕롱건설공사, 베트남철도운송공사(VNR), 호아팟그룹 등 모두 6곳
- 현대로템-타코그룹, 철도 기관차 국산화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과 쩐 바 즈엉 타코 회장은 베트남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용 기관차 국산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에 따라 현대로템은 철도 관련 최첨단 기술을 타코에 이전해 베트남에서 기관차 생산 및 기관차·신호 정보·기계 및 전기 부품에 이르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
 - 현재 타코는 호치민시 빈꺼 지역에 786ha 규모 기관차 및 열차 생산과 폐쇄형 시험 궤도 시스템, 정비 센터를 포함한 복합 철도 산업단지 투자를 계획 중
-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 베트남 친환경 컨테이너항만 투자 검토
 - 세계 2위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의 CEO 빈센트 클레르크는 하노이에서 가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대형 컨테이너 항만 투자 의사를 타진
 - 현재 머스크사는 베트남에 대규모 현대적 친환경 컨테이너 항만과 전략적 물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투자 기회를 모색 중

□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베트남) 꺼저-붕따우 연결 해상교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주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사업비) VND 104.4조 (USD 40억)
- (사업내용) 총 연장 14km, 사업 부지 규모 137.5ha
- (추진계획) '26. 착공 / '28. 완공 목표

- (주요사항) 호치민 꺼저 지역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진행 중인 빈그룹은 꺼저에서 봉따우까지 이어지는 해상교 건설 계획 발표
 - 빈그룹은 PPP · BT 방식의 투자를 제안한 상태이며, 빈그룹은 국가로부터 사업비에 상응하는 토지를 할당받으면, 부지 정리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자체 조달과 차입 등을 통해 부담 한다는 계획
 - 꺼저와 룽선-봉따우 지역은 생태 관광, 산업-항만, 물류 등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연결할 직접적인 교통망이 부재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51번 국도를 우회하거나 폐리를 이용하는 경우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약 2시간) 되고 있어, 양 지역이 해상교로 연결되면 지역 간 이동 시간은 10분 안팎으로 크게 단축돼 교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② (베트남) 꽝찌공항 항공산업 단지 및 항공업 복합단지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주처) 꽝찌성 인민위원회
- (사업비) VND 5.8조 (USD 2.2억)
- (사업내용) ICAO 4E급 국제공항 + 항공 허브 및 산업 복합단지 구축
- (추진계획) '24.7. 착공 / '26. 1단계 사업 완공 목표

- (주요사항) 꽝찌공항은 현재 PPP 방식으로 건설 중인 프로젝트로, 당초 설계 기준은 ICAO 4C 등급이었으나 향후 항공 허브 및 산업 복합단지로서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4E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제안